



자랑스런 로타리안 시리즈 ②

기업인, 사회 사업가로 나눔을 실천하는 **윤상구 국제로타리 재단이사**

윤상구 (주)동서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장남으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위원장,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국제로타리 이사,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호스트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상구 대표이사는 건축자재 수입 판매업체인 (주)동서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30여 년간 활동해오며 다양한 단체를 운영해 왔다. 이것은 그가 '나눔'이 진정한 행복임을 몸소 실천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최근에는 사단법인 국제로타리와 재단법인 국제로타리의 커뮤니티 그룹들 중 '전략계획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여 년간 회원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로타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의 고민인 '소속'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다. 요즘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하여 얹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로타리 전략계획위원회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로타리안이 되는 길은 오직 '회원 가입'이다. 로타리안이 되는 길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전략계획위원회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또, 로타리안이 되지 않아도 로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 경우에는 '봉사'라는 큰 틀은 동일하나 권리와 책임은 다를 것이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로타리안이 원하는 것에 관하여 100여만 명의 의견을 받아 분석하였다. 이 설문 조사로 도출된 것이 '비전 선언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비전 선언문'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행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나에게 로타리는 봉사의 샘이다.”



로타리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하여 선행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는 올해 말쯤 도출되어 내년엔 공유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계획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디지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로타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로타리안의 공동 과제를 풀어가고 있다.

로타리는 다양한 부분의 지도자 120만명이 모인 역량 있는 '봉사의 플랫폼'임이 틀림 없으며, 이러한 활동과 고민은 로타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사님께서 로타리안이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초 로타리가 생기게 된 계기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학업과 사회 생활을 하다가 귀국하게 되니 특별히 소속된 단체가 없었습니다. 마침 한양로타리에 소속된 지인의 소개로 한양로타리가 만든 새한양로타리가 창립되면서 1987년 로타리안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국제로타리 재단 운영에 참여하는 재단이사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결심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윤영석 이사님이 하셨듯이 뒤를 이어 잘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로타리안을 로타리안답게 만들며, 무엇이 이들의 가슴에 자부심을 심어 줄까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로타리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봉사'입니다. 그 매력이 저를 로타리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이사님께서 로타리안으로 활동하시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이 궁금합니다.

지난 2004~05년도 로타리 100주년 때 3650지구의 총재를 하였습니다. 로타리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지구 총재들이 뜻을 모아 몽골 고비사막에서 황사방지를 위한 대규모 방풍림 조성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다음해 계속 사업을 정하기 위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중 사고가 나서 불행하게도 일행 중 한 분인 고(故) 안민동 총재께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저 때문인 것 같아 로타리를 그만둘 작정이었는데, 그 분은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을 성공시켜 달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분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10년간 몽골 방풍림 조성과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 등을 제 나름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로타리, 그리고 로타리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임과 기부가 중요시되는 것보다 손발로 실천하는 모습이 행복한 로타리안이지 않을까요?

로타리는 봉사가 없으면 진정한 로타리가 아닙니다. 클럽에서 주도적으로 회원들이 봉사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리드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



자랑스런 로타리안 시리즈 ②

재능 기부로 나눔을 실천하는 **윤영석 前 국제로타리 재단이사**

기업인으로서 대우중공업 대표이사·회장, 대우그룹 회장 등 한국 산업을 이끌며 국제로타리 재단이사와 3650지구 총재를 역임하였다. 또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한·몽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우간다 명예영사, 한독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여왔다.



여러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명확한 경영 철학과 체계적인 조직 운영으로 성공적인 결과만을 도출해온 윤영석 이사는 로타리에도 그 재능을 기부하여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요즈음 로타리 3650지구 트레이너로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윤영석 이사의 최근 근황을 들으며, 무엇보다 로타리의 봉사가 가장 좋다는 그의 웃음에서 행복이 보였다.

이사님께서 로타리안이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1990년 이동진 회장님의 권유로 한강로타리클럽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한창 바쁠 시기여서 로타리에 잘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직장주회를 통하여 로타리안들에게 회사를 소개하며 10여 년간 로타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로타리의 회장이 되어 P.E.T.S 교육을 받았는데 경쟁에 익숙했던 저는 교육을 받던 중, 스스로 바뀌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질감으로 로타리안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지인들의 권유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로타리의 사례,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점차 로타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로타리안을 로타리안답게 만들며, 무엇이 이들의 가슴에 자부심을 심어 줄까요?

로타리의 핵심 키워드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즉 로타리의 봉사가 로타리를 로타리답게 만들며 로타리안의 자부심일 것입니다. 로타리안은 로타리에 대한 애정을

지난 1990년 로타리클럽에 입회해 28년간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윤영석 이사는 2009년 7월 1일, 3650지구 총재 취임식에서 '행동하는 로타리안들(Rotarians in Action)'이라는 지구 운영 기조를 발표하고, 3천여 명의 회원 증강과 75만 달러의 기부를 이끌어 내었다. 이것은 3650지구의 기록이자 국제로타리에서의 명예로운 보람이었다.

RI 본부 커뮤니티 멤버, 트러스트 재단 이사 업무로 미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로타리에 더욱 심취하게 되었다. '로타리의 전도사'라 불릴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로타리가 삶의 주요 테마였다.

“나에게 로타리는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이다.”

가져 로타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재는 명분, 목표, 당위성을 주어야 하고, 로타리안은 스스로 봉사하고 나누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로타리안이 '봉사의 심벌'이 되어 '로타리'하면 '네트워킹'보다 앞서 '봉사'라는 공식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이사님께서 로타리안으로 활동하시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이 궁금합니다.

봉사 활동으로 베트남에 가서 144명의 언청이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 후, 아이를 안는 엄마의 모습이 행복과 감사로 빛났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잊히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찍은 사진을 받았는데, 그 순간 봉사의 보람이 몰려왔습니다.

로타리, 그리고 로타리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봉사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타리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 시카고 시내에 '공중화장실 만들기' 봉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인류애의 실천이 로타리의 발전 방향이자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타리는 '소아마비 박멸'과 같은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120만 회원들은 정부나 다른 단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젊은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즉, 세대의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로타리 활동이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P.E.T.S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는 관심과 소통입니다. 지구 총재나 클럽 회장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콘택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발전 방향이 성공적이었을 경우,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그 결과는 회원 증강과 기부금 상승일 것입니다.

현재, 17개 지구 중, 3650지구 회원이 줄어 기부 금액도 낮습니다. 저는 9년 전, 총재 시절 단상에 올라 3천 명의 회원 증강을 다짐한 이후, 그것을 실천하여 포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즉, 로타리안으로서 초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실천수행하는 모습만이 로타리의 발전을 약속할 것입니다. 🌟

